

#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并治第六에 대한 연구

천상묵·한성규·여성원·이윤천·소용섭·노승조·정헌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Study on the 'Pulse Syndrome Complex and Treatment of Blood Paralysis and Weakness Fatigue' in The Synopsis of Golden Chamber(金匱要略)

Sang Muk Cheon, Sung Kyu Han, Sung Won Yeo, Yun Cheon Lee, Yong Sub So, Seung Jo Ro, Heon Young Jeong\*

Department of Classics,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The Blood paralysis(血痺) is infected by a poisonous factor of wind and it disturbs the circulation of meridian. This disease is similar phenomenon to the Blutsaure(血柱) and belongs to the category like the Radial nerve paralysis, the Ulna nerve paralysis and the instability syndrome of the lower limbs. This dissertation will inquire into symptoms, the way of treatment and the prescriptions of this disease based on the Synopsis of Golden Chamber(金匱要略). The Weakness and fatigue(虛勞) is occurred by several causes. This disease means all the functions of body weakened. This dissertation will inquire into pulse condit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Weakness and fatigue(虛勞), symptoms, the way of treatment and the prescriptions of this disease based on the Synopsis of Golden Chamber(金匱要略).

Key words : Blood paralysis, Weakness and fatigue

### 緒 論

本 篇은 血痺와 虛勞를 논술한 것으로 이 두 가지 病證이 모두 虛證에 속하기 때문에 한 篇으로 논술하였다.

血痺는 온 몸의 피부감각이 둔해지면서 뻣뻣하고 팔다리의 관절이 아프며 또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아픈 病症<sup>1)</sup>인데, 주로 身體局部의 皮膚가 뻣뻣하고 감각이 둔한 것이 주된 증상이며, 氣血이 부족한 상태에서 風邪가 侵襲하여 血液의 運行이 停滯되어 發生된다.

虛勞는 勞損·勞怯·虛損·虛損勞傷이라 부르기도 하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陰陽氣血이 虛弱하여 일어나는 慢性虛弱性疾患으로서, 나타나는 증상 또한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인 症狀은 먹는 양이 줄고, 정신이 어두우며, 遺精과 夢泄이 있고, 허리·등·가슴·옆구리의 근육과 뼈가 당기고 아프며, 潮熱·自汗·가래·기침 등이다.<sup>2)</sup>

일찍이 『素問·五藏生成篇』에 “누워 있다가 나가서 바람을 쐬어 血이 皮膚에 凝滯된 것이 痺이다.”<sup>3)</sup>고 하여 痺證의 成因과

病機를 밝혀 놓았으나 이는 風寒濕 三氣가 침범하여 肢體의 筋骨과 關節에 痛症을 特徵으로 하는 것으로 본 편의 氣血不足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血痺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虛勞는 藏府氣血陰陽의 不足으로 인하기 때문에 辨證할 때 어느 藏府에 氣와 血이 不足한지, 陰과 陽이 不足한지, 氣와 血, 陰과 陽 모두가 不足한지 등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한 본래 虛한데 外邪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外邪를 받아서 正氣가 耗損되었는지, 또는 勞損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의 狀況을 考慮하여야 한다.

또한 본 편은 虛勞를 논술함에 脾와 腎을 重視하여 치료에 脾胃를 調理할 것을 強調하였는데 이는 後代 虛勞治療의 根幹을 이루고 있으며, 後代에 甘溫한 藥으로 熱을 치료하는 方法은 본 편에 있는 小建中湯 및 黃芪建中湯을 演繹한 것이다.

본 편은 『內經』과 『難經』에 基礎하여 立法方藥을 發展시켰고, 後代의 血痺와 虛勞에 대한 病理와 治療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虛勞는 高齡化되는 현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思料된다.

이에 대한 研究가 國外에서는 李<sup>4)</sup>의 『金匱要略譯釋』·陳<sup>5)</sup>

\* 교신저자 : 정헌영,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jikjae@wonkwang.ac.kr, · Tel : 062-850-6808

· 접수 : 2006/01/20 · 수정 : 2006/03/02 · 채택 : 2006/03/25

1)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增訂韓醫學大辭典, 정답, 서울, 2001, p1735

2) 李梴: 凡飲食減少 精神昏短 遺精夢泄 腰背胸脅 筋骨引痛 潮熱自汗 痰盛咳嗽는 是虛勞常證也라

3) 『素問·五藏生成篇』: 臥出而風吹之하여 血凝于膚者爲痺라

의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張<sup>6)</sup>의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등 많은 書籍이 出刊되고 處方들의 臨床研究가 進行되고 있으나, 國內에서는 蔡<sup>7)</sup>가 原文의 懸吐와 註釋을 모아둔 것과 日本의 大塚敬節이 講義한 것을 國譯한 것<sup>8)</sup> 외에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이에 校勘과 諸家의 註釋을 考察하여 原文과 處方을 理解하므로써 血痺와 虛勞의 治療에 도움을 주고자 研究하였다.

## 研究方法 및 資料

本 論文은 原文의 懸吐·校勘·註釋·國譯·考察·結論의 順序로 研究하였다.

1. 각 原文에 條文번호를 달아 내용을 서술하였다.
2. 原文은 林億 등이 校正하고 趙開美가 校刊한 『金匱要略方論』<sup>9)</sup>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작은 글자로 된 文章도 모두 收容하였다.
3. 懸吐는 蔡<sup>10)</sup>의 『金匱要略精解』를 참고하였다.
4. 校勘한 文獻과 略稱은 <表1>과 같다.
5. 本 論文에 引用한 註釋書는 <表2>와 같고, 그 原文을 懸吐하여 脚註로 하였다.
6. 本 論文에 記載되어 있는 處方의 用量을 現代 用量으로 換算하면 <表3>과 같다.

表1. 校勘한 文獻 및 略稱

번호	書名	編著者	略稱
1	金匱要略方論	俞樾	俞本
2	金匱要略直解	沈明宗	直解
3	千金要方	孫思邈	千金
4	外臺秘要	王焘	外臺
5	諸病源候論	巢元方	病源
6	古今醫統正脈全書	王肯堂	醫統
7	脈經	王叔和	脈經
8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澗	魏本
9	金匱要略心典	尤怡	尤本
10	金匱要略淺注補正	唐宗海	補正
11	醫宗金鑑	吳謙	金鑑
12	金匱玉函要略輯義	丹波元簡	輯義
13	金匱要略	李克光	李本

表3. 度量衡 換算表

	3世紀初(張機著) <sup>11)</sup>	1065年(校正醫書局) <sup>12)</sup>	1563~1624年(趙開美板刻) <sup>13)</sup>
1 尺	24.12cm	30.72cm	31.10cm
1 斗	2023ml	6641ml	10737ml
1 升	202.3ml	664.1ml	1073.7ml
1 合	20.23ml	66.41ml	107.37ml
1 斤	222.73g	596.82g	596.82g
1 兩	13.92g	37.3g	37.3g
1 錢	1.392g	3.73g	3.73g
1 里	434.16m	552.96m	559.8m

- 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3.
- 5)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 6) 張玉清 編著: 胡庚辰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 7)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 8) 大塚敬節 主講 馮裁乎也 編譯: 金匱要略講話, 醫方出版社, 원주, 2003.
- 9)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 金匱要略方論, 裕昌德書局, 臺北, 1960.
- 10)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 11) 東漢의 張機가 著述한 時期로, 약 3世紀 초엽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 책 이름은 『傷寒雜病論』이었다.

表2. 選注書目

번호	書名	著者	備考
1	金匱要略直解	程林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2	金匱玉函經二注	趙以德·周揚俊	
3	金匱要略心典	尤怡	
4	醫宗金鑑·金匱要略注	吳謙	
5	金匱要略淺注	陳念祖	
6	金匱要略廣注	李紱	
7	金匱玉函要略輯義	丹波元簡	
8	金匱要略淺注補正	唐宗海	
9	金匱要略發微	曹家達	
10	金匱要略論注	徐彬	
11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澗	
12	金匱要略略注	高學山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13	醫學入門	李梴	
14	金匱要略正義	朱光被	
15	張仲景金匱要略	沈明宗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16	金匱懸解	黃元御	
17	金匱要略今釋	陸淵雷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18	金匱要略	曹穎甫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19	金匱方歌括	陳元犀	李克光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20	東醫寶鑑	許浚	
21	醫學一得	張壽頤	『金匱要略方論校註語譯』 再引用
22	金匱要略	陳紀藩	
23	金匱要略	李克光	
24	金匱要略方論校註語譯	郭霽春·王玉興	

## 研究內容

### 1條. 血痺의 病因과 脈象

#### 【原文】

問曰 血痺(1)病<sup>1)</sup>은 從何得之<sup>2)</sup>오

師曰 夫尊榮人(2)이 骨弱肌膚盛하<sup>3)</sup>니 重(3)困疲勞汗出<sup>4)</sup>커나 臥不時(4)動搖(5)3)하야 加被微風(4)하면 遂得之<sup>5)</sup>라 但以脈自(6)微(7)澹(8)5)이로대 在寸口(9)關上(10)이 小(11)緊(12)하면 宜鍼引(13)陽氣하야 令脈和(14)緊去則愈<sup>6)</sup>라

#### 【校勘】

- 1) 血痺病: 『脈經·卷八平血痺虛勞脈證第六』에는 “血痺”로 되어 있다.
- 2) 重困疲勞汗出: 『脈經·卷八平血痺虛勞脈證第六』, 『醫統本』에는 “重困疲勞汗出”로 되어 있다.
- 3) 臥不時動搖: 『脈經·卷八平血痺虛勞脈證第六』에는 “起臥不時動搖”로 되어 있다.
- 4) 加被微風: 『脈經·卷八平血痺虛勞脈證第六』에는 “如被微風”으로 되어 있다.
- 5) 但以脈自微澹: 『脈經·卷八平血痺虛勞脈證第六』에는 “形如風狀 但其脈自微澹”으로 되어 있다.

- 12) 1065年 北宋의 校正醫書局에서 당시에 있던 蘇簡本을 根據로 다시 정리하여 뒤을 時期로, 傷寒 부분은 생략하고 雜病 위주의 내용만 取하여 다시 3卷으로 만들고, 『金匱要略方論』이라고 改명한 時期이다.
- 13) 明代 관리였던 趙開美가 張仲景의 著作을 校正해 板刻한 時期이다.

【註釋】

- (1) 血痺: 氣血이 허약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風邪를 감수하거나,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렸을 때 風邪가 그 허한 틈을 타서 침입하여 氣血을 가로막음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 증상은 피부의 감각이 둔해지고, 팔다리 마디마디가 쭈시고 아픈 것이다.
- (2) 尊榮人: 地位가 높고 榮華를 누리는 사람.
- (3) 重: 再也, 거듭 중
- (4) 不時: 뜻하지 아니함. 뜻밖임.
- (5) 動搖: 흔들리어 움직임. 또, 흔들여 움직이게 함.
- (6) 自: 本來, 원래 자
- (7) 微: 脈의 형체가 모두 가늘고 힘이 없는 것이다.<sup>14)</sup>
- (8) 濇: 遲細하면서 短하여 往來하는 것이 걸끄럽고 둔하여 매우 流暢하지 못한 脈象이다.<sup>15)</sup>
- (9) 寸口: 양손의 關에서 魚際까지의 部位.<sup>16)</sup>
- (10) 關上: 양쪽 關部位를 뜻한다.
- (11) 少: 緊脈의 異名.
- (12) 緊: 脈의 넓이·길이·浮沈에 관계없이 줄을 잡아당기거나 새끼줄을 돌리는 것처럼 손가락을 치는 脈象을 뜻한다.
- (13) 引: 導也, 인도할 인
- (14) 和: 調也, 고를 화

【國譯】

문기를, “血痺病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스승이 답하길, “존귀하여 영화를 누리던 사람은 뼈가 연약한 반면 살과 피부는 茂盛하다. 이런 사람이 거듭 몸을 피곤하게 하여 땀을 흘리고 잠을 자다가 뜻하지 않게 밖에 나가서 輕微한 風邪에 感觸되면 곧 血痺病이 생긴다. 脈은 다만 원래부터 微濇하고, 寸部和 關部の 脈이 小緊하나 晄으로 陽氣를 인도하여 脈을 조화롭게 하여 緊한 것이 제거되면 곧 낫는다.”

【考察】

尊榮人은 평소 膏粱厚味를 지나치게 많이 먹고 起居가 편안하여 疲勞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겉으로 肌肉이 풍만하나 筋骨이 脆弱하여 안으로는 氣가 怯弱하므로 조금만 勞動을 하여도 쉽게 땀을 흘리니 많은 疲勞가 있으면 氣가 耗損되므로<sup>17)</sup> 腠理가 堅固하지 못하여 病邪에 대한 抵抗力이 낮으니 輕微한 風邪로 인하여도 쉽게 血行에 障礙가 생겨 血痺가 발생된다. 따라서 血痺는 평소 氣血이 不足한 상태에서 風寒의 邪氣가 침범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血痺는 氣가 血液을 推動하지 못하여 血虛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말하니 이를 西醫에서는 ‘血行靜止’(stasis)라 한다. 血行이 靜止되면 末梢의 靜脈血管內에 血球가 重疊되고 動脈內에 充血되어 陽이 陰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陰이 陽을 이끌지 못하여 重疊된 血球가 凝固되지도 않고 또 凝集되

지도 않고 銅錢이 쌓여 있는 것과 비슷하게 된 상태가 된다. 이러한 현상을 血柱(Blutsaure)라 한다. 血柱의 形成原因은 溫度가 過度하여 血液中에 水分이 不足하게 되어 일어나는 것이니 鍼으로써 陽을 瀉하여 病든 經의 井穴을 치료하면 낮게 되어 血液이 다시 運行된다. 血痺가 虛寒에 속한 것은 陽이 血을 運行하기에 無力한 것이므로 반드시 鍼으로써 陽氣를 引導하여 血行을 推動하여야 하며, 高熱에 속한 것은 땀이 나지 않고 水分이 모자란 것이므로 血行이 靜止되어 造成된 것이다.<sup>18)</sup> 虛勞와 함께 언급된 점으로 보아 본 條文에 언급된 血痺는 虛寒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임상에 있어서 血痺는 撓骨神經痲痺<sup>19)</sup>, 尺骨神經痲痺<sup>20)</sup>, 下肢不安證候群<sup>21)</sup>과 類似的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痲痺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血痺의 脈象에 대하여 原文에 “但以脈自微濇 寸口關上小緊”이라 하였는데 微脈은 陽氣虛, 濇脈은 血滯, 緊脈은 寒邪가 침범한 것을 의미한다<sup>22)</sup>. 陽氣虛한 상태에서 風寒의 邪氣가 侵犯하여 血行이 障礙되어 血痺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血痺의 脈象은 전체적으로 微濇脈이 나타나는데 寸部和 關部の 脈이 小緊하다.

血痺의 治法에 대하여 “宜鍼引陽氣”라 하였는데 血痺는 血行이 障礙되어 발생하는 것이지만 陽氣가 虛한 것이 根本原因이므로 陽氣를 引導하여 血行을 疏通하여야 하니 곧 “氣行則血行”에 바탕을 둔 것이다.

2條. 黃芪桂枝五物湯證

【原文】

血痺가 陰陽俱微(1)로대 寸口關上微하고 尺中(2)小緊하며 外證(3)은 身體不仁(4)이 如風痺(5)狀하면 黃耆桂枝五物湯主之라  
黃耆桂枝五物湯方：黃耆三兩 芍藥三兩 桂枝三兩 生姜六兩 大棗十二枚

右五味를 以水六升으로 煮取二升하고 溫服七合호대 日三服이라 一方엔 有人參이라

【註釋】

- (1) 陰陽俱微: 營衛·氣血 모두 虛한 것이다.<sup>23)</sup>
- (2) 尺中: 尺部를 가리킨다.
- (3) 外證: 內證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병이 환자의 밖으로 드러

14)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100

15)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100

16) 『難經』·二難: 從關至魚際는 是寸口內니 陽之所治也라

17) 李炆: 尊榮人은 顧養太過하고 起居安逸하여 不耐疲勞者라 故로 平日間에 骨弱肌膚盛하여 體雖外充而氣則內怯也라 重因疲勞하면 則氣耗而內外皆越이라

18) 陳欽銘 編著: 脈經新解 下, 國立中國醫藥研究所, 臺北, 1995, pp671, 672.

19) 요골신경의 급성 병변은 주로 上腕 부위에서 이 신경이 이차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前腕의 전체 伸筋이 마비되어 팔목이 처지고 손가락을 곧게 펼 수 없으며 엄지손가락을 外轉하지 못하며, 엄지손가락 등쪽과 제 1~2 掌骨 사이의 피부감각이 장애를 받는다. 김갑성 등: 實用東西醫學臨床叢書, 정담, 서울, 2001, p470, 471.

20) 새끼손가락의 동맥이 상실되고 팔목과 손가락의 굴신력이 약해지며 엄지손가락을 내수하지 못하고 팔목을 굽힐 때 손이 요골축으로 기울어진다. 소어제근과 골격근이 위축되며, 새끼손가락과 무명지의 척골축의 감각장애가 나타난다. 上揭書 p. 473.

21) 청·장년들에게 많이 발생되며, 만성적으로 발병하고 반복적으로 발작한다. 患指의 심부가 쭈시고 저리며 아프고 뜨거운 등의 고통스러운 동통이 나타나 참기 어려운데 그 고통이 극심하다. 동통은 수면시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환자를 두드러거나 활동하면 경감된다. 上揭書 p. 484

22) 尤怡: 脈微爲陽微하고 濇爲血滯하고 緊則邪之微也라

23) 陳紀藩: 陰陽은 指營衛氣血이요 微는 指虛弱이니 陰陽俱微는 營衛氣血俱不足이라

나는 것을 가리킨다.

(4) 不仁: 皮膚의 感覺 기능이 둔해지거나 상실된 것을 가리킨다.

(5) 風痺: 體質虛弱으로 風邪에 感觸되어 생긴다. 麻痺感和 痛症이 함께 있으나, 痛症이 주가 된다.

【國譯】

血痺는 營衛氣血이 모두 微弱한 것으로, 寸口의 關脈이 微하고, 尺脈은 小緊하며, 外證은 마치 風痺와 비슷하여 身體皮膚의 감각이 둔해지면 黃耆桂枝五物湯으로 治療한다.

黃耆桂枝五物湯方: 黃耆三兩 芍藥三兩 桂枝三兩 生姜六兩 大棗十二枚

이상 다섯 가지 약재를 물 六升到 달여서 二升이 되게 하여 하루에 세 번 七合씩 따뜻하게 복용한다.(어떤 책에서는 人參이 있다.)

【考察】

血痺의 脈象을 1條에 “脈自微澹”이라 하였고, 본 條文에 “寸口關上微”라 하여 濡脈이 빠져 있으나 이는 濡脈을 언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앞의 1條와 마찬가지로 모두 微澹脈이 나타날 것으로 史料된다. 또한 1條에 “寸口關上小緊”이라고 하였고, 본 조문에서는 “尺中小緊”이라고 하여 ‘小緊脈’이 關部로부터 尺部로 바뀌었는데, 이는 邪氣가 裏部로 들어가 病處가 더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血痺의 外證과 風痺는 감각이 둔한 증상이 있어서 비슷하나, 風痺는 痛症이 주가 되고, 血痺는 감각이상이가 주가 되는 차이가 있다.

黃耆는 腠理를 치밀하게 하고, 芍藥은 陰氣를 수렴하여 營血을 조화롭게 하고, 桂枝는 陽氣를 통하게 하고, 生薑과 大棗는 營衛를 조화시킨다.<sup>25)</sup>

3條. 虛勞의 脈象

【原文】

夫1)男子平人(1)이 脈大(2)하면 爲勞 極虛(3)도 亦爲勞라

【校勘】

1) 夫: 『脈經』에는 “夫”字가 없다.

【註釋】

(1) 平人: 氣血이 조화로운 건강한 사람을 가리키나, 본 조문에서는 외형적으로는 건강한 듯 보이나, 맥이 平脈이 아닌 病脈이 나타나는 사람을 가리킨다.<sup>26)</sup>

(2) 大: 浮取하면 손가락 가득히 힘이 있으나, 沈取하면 힘이 없는 脈象이다.<sup>27)</sup>

(3) 虛: 柔軟하고 힘이 없으면서 형체가 대한 脈象이다.<sup>28)</sup>

【國譯】

남자가 외형적으로 건강한 듯 보이나 脈이 大하면 虛勞病이고, 脈이 매우 虛한 것 또한 虛勞病이다.

【考察】

본 條文은 虛勞의 일반적인 脈象을 기술한 것이다.

原文에 그냥 平人이라 하지 않고 “男子平人”이라 하여 男子에 局限시킨 것은 男子는 陽에 속하여 氣를 주재하고, 女子는 陰에 속하여 血을 주관하는데 虛勞는 精氣가 損傷된 것이 비교적 많고 男子가 이 病을 앓을 機會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sup>29)</sup>

4條. 陰血不足의 虛勞

【原文】

男子面色薄(1)者는 主渴及亡血(2)이니 卒(3)喘(4)悸(5) 脈浮(6)者는 裏虛(7)也라

【註釋】

(1) 面色薄: 얼굴에 華色이 없는 것을 뜻한다. ※薄: 淡薄, 색깔 지아니할 박

(2) 亡血: 혈액을 잃는 것을 통틀어 가리킨다.

(3) 卒: 猝也, 갑자기 졸

(4) 喘: 콧방울이 벌렁거리고 어깨를 들먹이며 痰 끓는 소리가 나는 것.

(5) 悸: 심의 박동이 안정되지 않고, 두려워 불안한 것을 가리킨다.

(6) 浮: 가볍게 누르면 脈象이 잡히고, 무겁게 누르면 힘이 조금 감소되나 속은 비지 않으며, 손가락을 들면 손가락에 가득 차며 힘이 있는 脈象이다.<sup>30)</sup>

(7) 裏虛: 裏虛證으로, 臟腑의 陰陽氣血이 虛衰하여 발생하는 증후를 가리킨다.

【國譯】

남자의 얼굴에 華色이 없는 것은 주로 渴症 및 亡血이나 갑자기 호흡이 가쁘고, 가슴이 뛰고, 脈이 浮한 것은 裏虛證이다.

【考察】

精이 없어서 內熱이 생겨 스스로 물을 구하려고 하므로 渴症이 있는 것이고, 血이 적으면 얼굴에 華色이 없고 潤澤하지 않으므로 亡血이라 하였다.<sup>31)</sup> 또한 腎이 氣를 갈무리하지 못하므로 喘息하게 되고, 心營이 虛하면 悸하게 되며<sup>32)</sup>, 浮脈이 나오는 것은 精血이 虛하여 氣가 떠오르기 때문에 裏虛라고 하였다.<sup>33)</sup>

5條. 陰陽俱虛의 虛勞

【原文】

男子脈虛沈(1)弦(2)하고 無寒熱(3)하며 短氣(4)裏急(5)하고 小便不利(6)하며 面色白하고 時目瞑(7)하며 兼衄(8)하고 少腹滿하면 此는 爲勞使之然이라

【校勘】

1) 時目瞑: 『脈經』에는 “時時目瞑”으로 되어 있다.

24) 周揚俊: 夫小緊既見于尺이면 則邪之入也愈深이라

25) 李彭: 黃耆는 肥腠理하여 以實衛氣하고 芍藥은 斂陰氣而和榮血이라 桂는 猶圭也나 宣導聘使하여 爲通陰陽氣血之品이라 薑棗合用이면 行津液而和榮衛니 爲治血痺之良劑라

26) 李彭: 形如無病之人이니 難經云脈病人不病者가 是也라

27) 李梴: 大浮滿指沈無力이라

28)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101

29) 陶葆霖: 大抵依據陰陽理論이면 男子屬陽하여 主氣하고 女子屬陰하여 主血이라 虛勞의 構成은 屬于精氣偏傷의 比較占多數니 所以男子患此病의 機會較多라

30)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98

31) 曹家達: 精虧則生內熱하여 而引水自救 故로 主渴하고 血少則色夭不澤 故로 主亡血이라

32) 曹家達: 腎不納氣則喘하고 心營虛耗則悸라

33) 尤怡: 脈浮爲裏虛는 以勞則眞陰失守하고 孤陽無根하여 氣散於外而精奪於內也라

2) 兼衄: 『脈經』에는 “此人喜衄”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沈: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면 脈이 감응되지 않고, 무겁게 눌러야 잡히는 脈象이다.<sup>34)</sup>

(2) 弦: 脈象이 바르고 곧으면서 長하여 현악기의 줄을 누르는 것 같은 脈象이다.

(3) 寒熱: 惡寒發熱의 略稱이다.

(4) 短氣: 호흡이 짧고 빨라서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5) 裏急: 배속이 팍기면서 아파 편안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6) 小便不利: 소변양이 감소하고, 배뇨가 곤란한 경우 및 소변이 완전히 가로막혀 통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7) 目瞑: 눈 앞이 캄캄해지는 것.

(8) 衄: 鼻出血, 코피 났

【國譯】

남자의 脈이 虛·沈·弦하고, 惡寒發熱이 없으며, 호흡이 짧아지고, 배속이 팍기면서 아프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안색이 창백하며, 때때로 눈을 감고 코피를 흘리고 아랫배가 脹滿한 증상을 겸하면, 이것은 虛勞로 인한 것이다.

【考察】

본 조문은 虛勞 중 陰陽兩虛로 인한 경우의 脈證을 기술한 것으로, 虛弦한 脈象은 虛勞의 脈象이고,<sup>35)36)</sup> 沈脈은 병이 내부에 있음을 나타낸다.<sup>37)</sup> 無寒熱은 外感表邪가 아닌 것이니<sup>38)</sup> 內傷이라는 뜻이다. 短氣·面白·時目瞑兼衄은 上焦의 氣가 虛하고 營血이 부족한 증상이고, 裏急·小便不利·少腹滿은 下焦의 氣가 虛하여 氣의 運行이 원활치 못한 증상이다.<sup>39)</sup>

6條. 陰虛虛勞와 季節과의 關係

【原文】

勞之爲病<sup>1)</sup>은 其脈浮大하고 手足煩<sup>1)2)</sup>하며 春夏엔 劇<sup>2)</sup>하며 秋冬엔 瘥<sup>3)3)</sup>하고 陰寒<sup>4)</sup>精自出하고 酸<sup>5)</sup>削<sup>6)</sup>不能行<sup>4)</sup>이라

【校勘】

- 1) 勞之爲病: 『脈經』에는 “男子勞之爲病”으로 되어 있다.
- 2) 手足煩: 『脈經』에는 “手足煩熱”로 되어 있다.
- 3) 秋冬瘥: 『脈經』에는 “秋冬差”로 되어 있다.
- 4) 酸削不能行: 『脈經』에는 “足酸削不能行 少腹虛滿”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手足煩: 手足煩熱의 略稱으로, 환자의 손과 발에서 열이 나고, 煩躁한 것을 가리킨다.
- (2) 劇: 甚也, 심할 극
- (3) 瘥: 癒也, 병나을 차

34)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99

35) 夫男子平人이 脈大爲勞 極虛亦爲勞라

36) 『醫學入門』·相兼主病: 弦爲血弱有勞傷이라

37) 『醫學入門』·相兼主病: 凡脈浮盛하면 爲病在表在外 沈堅하면 爲病在裏在內라

38) 曹穎甫: 衛虛則生寒하고 營虛則生熱이라 故로 表邪에 見沈弦者는 必有寒熱이라 今無寒熱 則非表邪可知라

39) 吳謙: 短氣面白하고 時暝兼衄은 乃上焦虛而血不榮也 裏急小便不利하고 少腹滿은 乃下焦虛而氣不行也라

(4) 陰寒: 男子의 경우는 陰部가 차면서 痿弱하고, 女子의 경우는 陰部가 차갑고 腹中 역시 찬 느낌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5) 酸: 관절이 시큰거리고 아픈 것을 가리킨다.

(6) 削: 消瘦, 마를 삭

【國譯】

虛勞病의 症狀은 脈이 浮大하고, 손과 발에서 煩熱이 난다. 봄과 여름에는 病이 더 심해지고, 가을과 겨울에는 병이 완화되고, 陰部가 차고, 정액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다리가 시큰거리고 살이 빠지고 걷기 어려워진다.

【考察】

脈이 “浮大”한 까닭은, 3條·4條에서 언급한 것처럼 陰이 虛하여 陽氣가 밖으로 들떠서 그런 것이다. “手足煩熱”은 陰虛하여 陽을 간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40)</sup>

본 條文은 陰虛한 虛勞病의 豫後에 있어서 봄과 여름은 陽에 해당하는 계절이므로 병이 더 심해지고, 가을과 겨울은 陰에 해당하는 계절이므로 병이 좀 완화된다.<sup>41)</sup> 이는 『素問·陰陽應象大論』의 “能冬不能夏 能夏不能冬”의 原理에 해당된다.

陰虛가 심해지면 陽氣 역시 虛해지니, 음부가 차갑게 되고, 遺精이 생기며, 다리가 말라 걷기 힘들게 된다.<sup>42)</sup>

7條. 虛勞無子

【原文】

男子脈浮弱<sup>1)</sup>而澀<sup>1)</sup>하면 爲無子니 精氣清冷<sup>2)</sup>일새라 一作冷이라

【校勘】

1) 浮弱而澀: 『脈經』에는 “微弱而澀”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弱: 매우 軟弱하면서 沈細한 脈象이다.<sup>43)</sup>

(2) 精氣清冷: 精液이 아주 적으면서 찬 것을 가리킨다.

【國譯】

남자의 脈이 浮弱하면서 澀하면 자식을 갖지 못하니, 精液이 적고 차기 때문이다.

【考察】

“浮”脈은 陰虛를 나타내고, “弱”脈은 眞陽不足을 나타내고, “澀”脈은 精血不足을 나타내니<sup>44)</sup> 陰陽과 精血이 부족하여 男子로 인한 不妊의 原因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無子’는 男性不妊症에 해당되는 것으로 性的 興奮과 陰虛의 勃起는 정상적이거나 射精이 되지 않는 不射精症, 精液이 排出된 후 실온에서 60분이 지나도 液化되지 않거나 여전히 凝結 상태에 있는 精液不化症, 精液 검사에서 죽은 精子가 40% 이상이고 활동율이 60% 이하로 나타나는 죽은 정자 과다증, 射精 후 한 시간 동안의 정자 활동율이 60% 이하이고 6시간 동안의 정자 활동율이 20% 이하이거나 射精 후 1~3시간 내의 정자 활동 능력이

40) 吳謙: 手足煩은 卽今之虛勞의 五心煩熱이니 陰虛不能藏陽也라

41) 吳謙: 夫春夏陽也니 陰虛不能勝其陽 故로 劇하고 秋冬陰也니 陰虛得立自起 故로 瘥라

42) 尤怡: 其極이면 則并傷其陽하야 而陰寒精自出이라

43)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101

44) 沈明宗: 浮는 乃陰虛요 弱은 爲眞陽不足이요 澀은 爲精衰라

떨어지거나 전혀 없는 精子活力 低下症, 精子가 1ml당 2,000만개 이하인 精子減少症, 無精子症, 慢性閉鎖性 無精子症 등이 原因이 된다.<sup>45)</sup> 男性不妊의 중요한 임상적 문제는 대부분 睪丸의 生殖子 形成不全이며, 性腺機能低下症에서 남성호르몬 分泌不全과 精子 發生不全은 동반된다.<sup>46)</sup> 여기서 “精氣清冷”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8條. 桂枝龍骨牡蠣湯證

【原文】

夫失精家(1)는 少腹(2)弦急(3)하고 陰頭寒하며 目眩(1) 一作目 暈(4)痛 髮落이라 脈極虛(5)遲(6)면 爲清穀(7)亡血失精(2)이라 脈得諸(8)微緊이면 男子失精이요 女子夢交(9)3)나 桂枝龍骨 牡蠣湯主之(4)라

桂枝加龍骨牡蠣湯方 小品(10)에 云 虛弱浮熱汗出者엔 除桂 하고 加白薇附子各二分 故로 曰二加龍骨湯이라

桂枝二兩 芍藥三兩 生姜三兩(5) 甘草二兩 大棗十二枚 龍骨 牡蠣(6)

右七味를 以水七升으로 煮取三升하고 分溫三服이라

【校勘】

- 1) 目眩: 『脈經』에는 “目暈痛”으로 되어 있다.
- 2) 『脈經』에는 “夫失精家…爲清穀亡血失精”과 “脈得諸(8)微緊…桂枝龍骨牡蠣湯主之”가 각기 독립된 條文으로 되어 있고, 『金鑑』에는 “…亡血失精”과 “脈得諸(8)微緊…”은 문장의 뜻 이 서로 이어지지 않으니, 마땅히 다른 條文으로 분류해야 한 다.”<sup>47)</sup>고 하였다.
- 3) 女子夢交: 『脈經』에는 “女子夢交通”으로 되어 있다.
- 4) 桂枝龍骨牡蠣湯主之: 『脈經』에는 “桂枝加龍骨牡蠣湯主之”로 되어 있다.
- 5) 桂枝二兩: 『醫統本』에는 “桂枝三兩”으로 되어 있다.
- 6) 龍骨 牡蠣: 『醫統本』에는 “龍骨 牡蠣各三兩”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失精家: 항상 夢遺·滑精을 앓는 환자.
- (2) 少腹: 배꼽과 골반 사이에 해당한다.
- (3) 弦急: 팽팽하게 땅기는 것을 뜻한다.
- (4) 暈: 目暈, 눈자위 광
- (5) 花: 浮大하면서 비어 있어 과 있음을 누르는 것과 같은 脈象으로 脈位는 浮하고, 脈象은 大하고, 氣勢는 柔軟하며,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48)</sup>
- (6) 遲: 의사의 1호흡에 환자의 맥이 3번 박동하는 脈象이다.<sup>49)</sup>
- (7) 清穀: 먹은 것이 소화되지 않고 멀건 물 같은 대변이 나오는 것을 뜻한다.
- (8) 動: 콩알 같이 동글동글한 것이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脈象이다.<sup>50)</sup>

- (9) 夢交: 꿈속에서 性交함으로 인해 遺精하는 것을 가리킨다.
- (10) 小品: 方書名. 東晉의 陳延之가 4세기 초엽에 편찬하였다. 본 서는 失傳되었는데, 그 失傳된 문장이 『外臺秘要』·『醫心方』 등에서 단편적으로 보인다.

【國譯】

失精환자는 少腹部가 단단하고 팽팽하며 前陰部가 차고, 눈 앞이 어질어질하며, 머리카락이 빠진다. 脈이 몹시 虛하고, 扞遲 하면 소화되지 않은 대변을 보고, 血液을 잃는 증상과 遺精이 나타난다. 脈이 扞動微緊하면 남자는 失精이 나타나고, 여자는 夢交가 나타나니, 桂枝龍骨牡蠣湯으로 치료한다.

桂枝加龍骨牡蠣湯方

『小品』에 “脈이 虛·弱·浮하고 熱이 나며,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桂枝를 빼고, 白薇·附子 各二分을 加味하니, 二加龍骨湯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桂枝二兩 芍藥三兩 生姜三兩 甘草二兩 大棗十二枚 龍骨 牡蠣 各三兩 이상 일곱 가지 藥材를 물 7升으로 달여 3升이 되게 하고, 따뜻하게 세 번 나누어 服用한다.

【考察】

“失精家”는 항상 夢遺나 滑精을 앓는 사람이나 精液의 耗損이 지나쳐 腎陽이 虛하여 精을 固攝할 수 없는 사람이다. “少腹弦急”한 것은 腎陽이 虛하여 少腹이 차기 때문이며, “陰頭寒”한 것 또한 腎陽이 虛하기 때문이며, “目眩”은 精氣가 없어졌기 때문이며, “髮落”은 血이 말랐기 때문이다. “脈極虛(5)遲(6)”는 虛弱을 나타내고, “扞”는 亡血을 나타내고, “遲”는 寒을 나타내니, 陰陽이 모두 虛한 脈象이다. 따라서 清穀·亡血·失精이 생기게 된다.<sup>51)</sup> 脈이 “扞動微緊”한 것은 陰陽이 모두 虛한 것이다. 이럴 경우 神과 精에도 영향을 미쳐 남자는 失精하게 되고, 여자는 夢交하게 된다.<sup>52)</sup>

桂枝龍骨牡蠣湯은 陰陽이 모두 虛하여 失精하거나 夢交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桂枝와 生薑은 衛氣를 堅固케 하여 陽氣를 通하게 하고, 芍藥과 甘草와 大棗는 脾胃를 調和시켜 陰을 기른다. 龍骨은 陽에 속하고, 心肝腎에 歸經하여 정신을 안정시키고, 牡蠣은 陰에 속하고, 腎으로 歸經하여 相火를 끈다.<sup>53)</sup>

【附方】

天雄散方: 天雄(1)三兩炮 白朮六兩 桂枝六兩 龍骨三兩

右四味를 杵(2)爲散하여 酒服半錢匕호대 日三服이라 不知면 稍增之라

【註釋】

(1) 天雄: 毛茛科 식물인 烏頭(Aconitum carmichaeli Debx.)의 晝뿌리. 辛·熱하며 毒이 있다. 祛風·散寒·燥濕·益火助陽한다. 風寒濕痺·歷節風痛·四肢拘急·心腹冷痛·疥癬癢癢를 치

51) 吳謙: 失精家は 謂腎陽不固精也나 少腹弦急하고 虛而寒也라 陰頭寒은 陽氣衰也요 目眩은 精氣虧也요 髮落은 血本竭也라 若診其脈極虛而扞遲者면 當知極虛爲勞요 扞爲亡血이요 遲則爲寒이라 故로 有清穀亡血失精之症也라

52) 尤怡: 脈得諸(8)微緊者는 陰陽兼乘而傷及其神與精也라 故로 男子失精하고 女子夢交라

53) 李炘: 桂枝·生薑은 固衛以行陽하고 芍藥·甘草·大棗는 和脾以養陰이라 … 龍骨은 屬陽하고 入心肝腎三經이라 以心藏神 肝藏魂 腎藏精與志나 用之면 所以安神魂而定志라 牡蠣는 屬陰하고 入腎經이라 壯水之主하여 以制陽光이면 則相火自熄이니 此益陽養陰之主方也라

45) 김갑성 등: 實用東西醫學臨床叢書 5권, 鼎談, 서울, 2001. p259.

46) 上揭書, p. 263

47) 吳謙: 此條亡血失精之下等句는 與上文으로 義不屬이니 當另作一條在後라

48)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 98

49) 上揭書 p. 101

50) 上揭書 p. 102

료한다. 藥性和 效力이 附子보다 더 강하다.

(2) 枳: 擣穀, 공이질할 저

【國譯】

이상 네 가지 약재를 찧어 가루를 만들어, 하루에 세 번 半錢匕만큼 술로 服用한다. 만약 藥效가 없으면 服用量을 조금 늘린다.

【考察】

原文에 處方의 出典을 밝히지 않았으나 『外臺』·卷十六에 “范汪이 三物天雄散으로 男子가 虛하여 失精하는 것을 치료하였다. 天雄三兩·炮白朮八分·桂心六分 이상 세 가지 약재를 찧어 채어 거르고, 半錢匕만큼 하루에 세 번 복용하되 약간씩 용량을 늘린다. 仲景의 처방에는 龍骨이 더 있고, 나머지는 仲景의 문장과 같다.”<sup>54)</sup>고 하였으니, 仲景의 처방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원문에 主治症이 없으나 失精에 사용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天雄과 桂枝는 陽氣를 補하고, 龍骨은 精을 收澁하고, 白朮은 脾를 補하니, 天雄散은 陽氣를 補하면서 精을 收澁한다.

9條. 虛勞盜汗

【原文】

男子平人이 脈虛弱細(1)微者는 喜盜汗(2)也라

【註釋】

(1) 細: 脈의 가늘기가 실과 같으나 손가락에 감응되는 것이 분명한 脈象이다.<sup>55)</sup>

(2) 盜汗: 寢汗이라고도 한다. 잠을 잘 때는 땀이 나지만 잠에서 깨면 땀이 곧 멎는 것을 가리킨다.

【國譯】

男子가 걸으려는 병이 없는 것 같지만 脈이 虛弱하고 細微하면 盜汗을 잘 흘린다.

【考察】

“虛弱”한 脈象은 陽이 虛한 것을 나타내고, “細微”한 脈象은 陰이 虛한 것을 나타내고<sup>56)</sup>, 盜汗은 虛勞의 증상 중 하나이다.<sup>57)</sup> 本 條文에는 처방이 나와 있지 않으나, 陰陽이 모두 虛한 경우이므로 8條의 桂枝加龍骨牡蠣湯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10條. 虛寒·虛熱虛勞의 脈象

【原文】

人年五六十(1)에 其病脈(1)大者가 瘳(2)俠背行하고 若腸鳴(2)馬刀俠瘳(3)者는 皆爲勞得之라

【校勘】

1) 人年五六十: 『脈經』에는 “人年五六十”으로 되어 있다.

2) 若腸鳴: 『脈經』에는 “苦腸鳴”으로 되어 있다.

【註釋】

(1) 病脈: 질병을 반영하는 脈象을 뜻한다.

(2) 瘳: 癱瘓, 지릴 비

(3) 馬刀俠瘳: 馬刀瘳. 瘳瘳의 한 가지. 瘳瘳의 멍울이 여러 개 연달아 생긴 것을 말한다. 생긴 모양이 말조개와 비슷하다고 하여 馬刀라고도 하며, 흔히 귀 아래에서 缺盆穴 부위까지, 또는 어깨에서 겨드랑이까지 생기는데 길쭉하고 단단하다.

【國譯】

나이 50~60에 病脈이 大한 사람이 脊部 兩側으로 癱瘓感이 있으며 腸鳴과 겨드랑이나 목에 멍울이 있다면 모두 虛勞로 인한 것이다.

【考察】

사람의 나이가 50~60대가 되면 精이 衰하고, 腎이 衰하게 된다.<sup>58)</sup> 따라서 虛勞의 脈象인 大脈이 나타난다.<sup>59)</sup> 背部는 精氣升降의 통로이므로<sup>60)</sup> 精氣가 감소하면 筋을 營養하지 못해 마비감이 생기게 된다.

馬刀俠瘳은 『靈樞』·癱疽篇에 “癱腫이 단단하면서 짓무르지 않는 경우를 馬刀俠瘳이라 한다.”<sup>61)</sup>고 하였으니, 癱疽의 일종이다. 癱疽는 元氣가 부족해서 생기니 虛勞가 원인이다.

吳謙은 “若腸鳴 3字는 문맥상 어색하다. 錯簡된 것이니 마땅히 삭제해야 한다.”<sup>62)</sup>고 하였다. 郭도 吳謙의 錯簡說을 옳다고 인식하였고, “若”字도 “苦”字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고, 덧붙여 “苦腸鳴”을 11條의 “腹滿 甚則漉泄”의 “腹滿” 다음에 첨가해야 한다고 하였으니<sup>63)</sup> “若”는 豫及之辭로서 ‘및’의 뜻이 있으니 馬刀俠瘳이 ‘脈大’에 나타나는 한 가지 病症으로 보아도 될 수 있으므로 原文대로 두어야 妥當하다.

11條. 脫氣의 脈證

【原文】

脈沈小(1)遲를 名脫氣(2)니 其人이 疾(3)行則喘渴(1)(4)하고 手足逆寒하며 腹滿하고 甚則漉(5)泄하고 食不消化也라

【校勘】

1) 疾行則喘渴: 『醫統本』에는 “疾行則喘渴”로 되어 있다. “渴”이 옳으므로 “渴”로 고쳐 國譯한다.

【註釋】

(1) 小: 傷寒論 271條<sup>64)</sup>에 나온 脈象으로 弱脈·微脈과는 달리 손끝에서 명확히 느낄 수 있고, 細脈과 비교하면 더 굵다. 대부분 元氣가 부족할 때 나타난다.

(2) 脫氣: 虛勞病으로 元氣가 虛衰한 질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勞傷久病·脾腎兩虛·中氣虛損으로 인해 발생한다.

(3) 疾: 急也, 빠를 질

(4) 喘渴: 氣喘할 때 그렇그렇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實喘·虛喘에서 모두 나타난다.

58) 周揚俊: 人生五十始衰하고 六十天癸竭 則已精少腎衰矣라

59) 3條: 夫男子平人 脈大爲勞

60) 東醫寶鑑: 問背後三關이라 答曰腦後日玉枕關이요 夾脊日轆轤關이요 水火之際日尾閭關이니 乃精氣升降之道路也라 (正理)

61) 其癱堅而不潰者를 爲馬刀俠瘳이라

62) 吳謙: 若腸鳴三字는 與上下文不屬이라 必是錯簡이니 當刪之라

63) 郭霽春: “苦腸鳴”은 與 “瘳俠背行” 及 “馬刀俠瘳”으로 似不相類라 若移還 “腹滿” 下 則 “苦腸鳴 甚則漉泄 食不消化”니 豈不文從義順이리오

64) 傷寒三日 少陽脈小者 欲已也

54) 范汪療男子虛失精이라 三物天雄散方은 天雄三兩 炮白朮八分 桂心六分 이니 右藥을 擣下篩하여 服半錢匕호대 日三하고 稍稍増之라 … 張仲景方에 有龍骨하고 文仲同이라

55)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100

56) 魏荔彤: 脈已虛而弱 則陽已損也요 細而微 則陰已涸也라

57) 許倬: 諸虛不足하여 榮衛俱竭이면 五勞七傷이니 骨蒸潮熱하고 腰背拘急하고 百節痠疼하고 夜多盜汗 … 『得效』

(5) 滯: 滯也, 진흙 당

【國譯】

脈이 沈·小·遲한 것을 脫氣라고 하니, 그 사람이 빨리 걸으면 숨이 차면서 그렇그런 소리가 나고, 손발이 싸늘하며, 배가 그득하고, 심하면 대변이 묽고, 飲食物을 消化시키지 못한다.

【考察】

“沈”脈은 病이 裏에 있음을 나타내고, “小”脈은 元氣가 부족한 것을 나타내고, “遲”脈은 寒을 나타낸다. 따라서 沈小遲脈이 나타나면 陰氣는 盛하나 陽氣는 크게 虛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脫氣”라고 한다.<sup>65)</sup>

“其人疾行則喘喝”하는 까닭은 胸中の 氣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며<sup>66)</sup>, 陽氣가 虛하므로 손발이 싸늘하며, 消化가 잘 안 되 배가 그득하고, 묽은 변을 본다.<sup>67)</sup>

본 증상은 脾胃陽虛의 증상이다. 따라서 임상에서 附子理中湯·雙補湯 등을 응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10條의 校勘에서 郭은 “苦腸鳴”이 本 條文의 “腹滿”다음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임상상 滯泄 증상에는 “雷鳴”이 있으므로 참고할 만 하다.

12條. 精血이 없어진 虛勞의 脈象

【原文】

脈弦而大한대 弦則(1)爲減하고 大則爲芤면 減則爲寒이요 芤則爲虛나 虛寒相搏을 此名爲革이라 婦人則半產漏下(3)하고 男子則亡血失精이라

【註釋】

- (1) 則: 오히려 ‘즉’으로 해석한다.<sup>68)</sup>
- (2) 漏下: 過勞로 氣血을 損傷하여 衝·任脈이 虛損해져 月經의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經血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國譯】

脈이 弦하면서 大하되, 弦은 減이 되고 大는 芤가 되면, 減한 것은 寒이 되며 芤한 것은 虛가 된다. 虛와 寒이 서로 뒤섞이면 革脈이라고 한다. 女子의 경우는 流產과 漏下가 발생하고, 男子의 경우는 亡血과 失精이 발생한다.

【考察】

革脈의 脈象을 原文에 “弦而大”라고 표현하였으므로 革脈은 弦大한 脈象과 유사하다. 後代에는 浮하면서 손가락을 치고, 가운데는 비고 밖은 단단하여 마치 북 가죽을 누르는 것 같은 脈象이라고<sup>69)</sup> 表現한다. 따라서 弦大한 脈象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弦脈은 浮沈에 상관없이 곧으면서 長하지만, 革脈은 浮取하면 弦脈같지만, 沈取하면 無力하여 弦脈과는 차이가 있다. 大脈은 浮

取하면 손가락 가득히 힘이 느껴지나 沈取하면 無力해지는 특징이 있다. 革脈도 浮取하면 大脈과 비슷하지만 沈取하면 텅 빈 듯한 芤脈과 유사하여 大脈과 차이가 있다.

弦則爲減”은 陽氣가 衰함을 나타내고, “大則爲芤”는 陰氣가 衰함을 나타낸다. 陽氣가 衰하니 內部가 寒해지고, 陰氣가 衰하니 內部가 虛해진다.<sup>70)</sup>

革脈이 생기는 기전은 陰氣가 크게 傷한 이후에 陽氣가 浮越한 것이다. 따라서 女子는 流產·漏下의 경우에 나타나고, 男子는 亡血·失精의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現代 醫學의으로는 高血壓에 나타나는 脈으로도 볼 수 있다.

13條. 小建中湯證

【原文】

虛勞에 裏急悸衄하며 腹中痛하고 夢失精하며 四肢酸疼(1)(1)하고 手足煩熱(2)하며 咽乾口燥하면 小建中湯主之라

小建中湯方: 桂枝三兩去皮 甘草三兩炙 大棗十二枚 芍藥六兩 生姜二兩<sup>2)</sup> 膠飴一升

右六味를 以水七升으로 煮取三升하야 去滓하고 內膠飴하야 更上微火消解하야 溫服一升호대 日三服이라 嘔家는 不可用建中湯이니 以恬(3)故也라

【校勘】

- 1) 四肢酸疼: 『醫統本』에는 “四肢痠疼”으로 되어 있다.
- 2) 生薑二兩: 『醫統本』에는 “生薑三兩”으로 되어 있다.
- 3) 『醫統本』에는 “以恬故也” 아래에 다음의 내용이 더 있다. “千金療男女因積冷氣滯 或大病後不復常 若四肢沈重 骨肉痠疼 吸吸少氣 行動喘乏 胸滿氣急 腰背強痛 心中虛悸 咽乾唇燥 面體少色 或飲食無味 脇肋腹脹 頭重不舉 多臥少氣 甚者積年 輕者百日 漸致瘦弱 五臟氣竭則難可復常六脈俱不足 虛寒乏氣 少腹拘急 羸瘠百病 名曰黃耆建中湯 又有人參二兩”

【註釋】

- (1) 痠疼: 關節이 시큰거리면서 아픈 것을 말한다.
- (2) 手足煩熱: 手足에서 熱이 나고, 煩躁한 것을 말한다. 骨蒸·虛勞 등에서 보인다.
- (3) 恬: 甘也, 달 침

【國譯】

虛勞로 배가 땅기면서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코피가 나고, 배속이 아프고, 夢精을 하고, 四肢가 시큰거리면서 아프고, 손발에 열이 나며 煩躁하고, 목이 마르며 입이 건조하면 小建中湯으로 치료한다.

小建中湯方: 桂枝三兩去皮 甘草三兩炙 大棗十二枚 芍藥六兩 生姜二兩 膠飴一升

이상 여섯 가지 약재를 물 七升으로 三升이 되게 달여서 찌꺼기를 버린 다음 膠飴를 넣고, 다시 약한 불에 올려 녹이고, 一升씩 하루에 세 번 복용한다. 평소 嘔吐를 하는 사람은 建中湯의 약맛이 달기 때문에 쓸 수 없다.

【考察】

70) 曹家達: 脈弦은 爲陽氣衰오 脈大而芤는 爲陰氣衰이니 陽衰則中寒하고 陰衰則裏虛라

65) 尤怡: 脈沈小遲는 皆陰象也나 三者并見이면 陰盛而陽乃亡矣라 故로 名 脫氣라  
 66) 吳謙: 脫氣者는 謂胸中大氣虛少하야 不充氣息所用이라 故로 疾行喘喝也라  
 67) 吳謙: 陽虛則寒이니 寒盛于外면 四肢不溫 故로 手足逆冷也요 寒盛于中 故로 腹滿泄泄하고 食不消化也라  
 68) 民族文化研究所, 中韓辭典, 高대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98, P 3003  
 69)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釜山, 2000, p99

本條는 陰·陽이 모두 虛한 虛勞의 증상을 나열한 것이다. 裏急·腹中痛은 寒證이고, 悸·衄·手足煩熱·咽乾口燥는 熱證이다.

心血이 부족하면 心悸症이 생기고, 氣血이 부족하여 四肢를 滋養하지 못하면 四肢가 酸疼하게 되고, 腎이 허하여 固攝作用이 원활치 못하면 夢精을 하게 된다.

桂枝는 陽氣를 運行케 하고, 芍藥은 陰血을 기르고, 甘草·大棗·膠飴는 脾經으로 들어가 脾氣를 기르고, 生薑은 桂枝의 藥力을 돕는다.<sup>71)</sup>

小建中湯은 현대 임상에서 만성위염·십이지장궤양·위산 경증·자율신경실조증·심장신경증 등에 응용한다.<sup>72)</sup> 다만 本條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구역감이 생길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14條. 黃耆建中湯證

【原文】

虛勞裏急(1)諸不足은 黃耆建中湯主之라

於小建中湯內에 加黃耆一兩半하고 餘依上法이라 氣短胸滿者는 加生姜하고 腹滿者는 去棗加茯苓一兩半하고 及療肺虛損不足하여 補氣엔 加半夏三兩이라

【註釋】

(1) 裏急(이급): 아랫배가 끌어당기는 것 같이 아프면서 금시 대변이 나올 것 같은 증상.

【國譯】

虛勞病에 아랫배가 팽기면서 아파서 편안하지 않고, 陰陽氣血이 모두 부족하면 黃耆建中湯으로 치료한다.

(小建中湯에 黃耆 一兩半을 加味하고, 기타는 위의 방법에 따른다. 호흡이 짧고 가슴이 그득한 경우는 生薑을 加味하고, 腹部가 그득한 경우는 大棗를 빼고 茯苓 一兩半을 加味하며, 肺虛不足을 치료하기 위해 補氣하려면 半夏 三兩을 加味한다.)

【考察】

“虛勞裏急 諸不足”은 13條의 “虛勞 裏急悸衄 腹中痛 夢失精 四肢酸疼 手足煩熱 咽乾口燥”의 내용을 포괄한 뜻이다.<sup>73)</sup>

다만 小建中湯에 補氣之劑인 黃耆를 加하여 사용한 것을 보면 13條의 症狀 외에 少氣·自汗 或盜汗·惡風·或不仁 등의 氣虛證狀이 더 있음을 알 수 있다.<sup>74)</sup>

“短氣胸滿”한 경우 生薑을 加味한 것은 飲氣가 陽氣를 막아서 短氣胸滿한 것이니 生薑으로 宣通시키고자 함이다.<sup>75)</sup>

“腹滿”한 경우 大棗를 빼고 茯苓을 加味한 것은 水飲을 除去하고 脾氣를 빠르게 하고자 함이다.<sup>76)</sup>

肺氣가 虛할 경우 氣를 補하기 위해 半夏를 加味한 까닭은 氣循

環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半夏를 加味하여 氣循環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正氣를 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sup>77)</sup>

15條. 八味腎氣丸證

【原文】

虛勞腰痛하고 少腹拘急(1)하며 小便不利者는 八味腎氣丸(2)主之라 方見脚氣中(1)

【校勘】

1) 方見脚氣中: 『醫統本』에는 “方見婦人雜病中”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옳다.

【註釋】

(1) 拘急: 肢體가 땅겨 불편하거나, 혹은 筋이 오그라들어 屈伸에 장애가 오는 증상을 가리킨다.

(2) 八味腎氣丸: 金匱腎氣丸·桂附八味丸이라고 한다. 乾地黄八兩 山藥 山茱萸各四兩 澤瀉 牡丹皮 茯苓各三兩 桂枝 附子炮 一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藥材를 가루를 내어 煉蜜에 梧子 大 크기로 丸을 만들어 十五丸 내지 二十五丸을 술로 하루에 두 번 服用한다.

【國譯】

虛勞로 허리가 아프고, 아랫배가 팽기고, 小便不利가 생기면 八味腎氣丸으로 치료한다.

【考察】

腎이 虛하여 精血이 허리의 筋肉을 영양하지 못하면 허리가 아파게 되고,<sup>78)</sup> 아랫배가 팽기게 되고,<sup>79)</sup> 小便이 잦으면서 방울 방울 나오게 된다.<sup>80)</sup>

따라서 腎陰을 補하는 六味地黄丸에 桂枝·附子를 加味하여 腎陽도 아울러 補해야 한다.

16條. 薯蕷丸證

【原文】

虛勞諸不足의 風氣(1)百疾은 薯蕷(2)丸主之라

薯蕷丸方: 薯蕷十分 當歸十分 桂枝十分 乾地黄十分 麴十分 豆黃卷十分 甘草二十八分 芎藭六分 麥門冬六分 芍藥六分 白朮六分 杏仁六分 人參七分(1) 柴胡九分 桔梗九分 茯苓九分(2) 阿膠十分(3) 乾姜三分 白斂二分 防風六分 大棗百枚爲膏

右二十一味를 末之(4)하고 煉蜜(3)和丸如彈子大(4)하야 空腹에 酒服一丸호대 一百丸爲劑라

【校勘】

- 1) 人參七分: 『醫統本』에는 “人參十分”으로 되어 있다.
- 2) 柴胡 桔梗 茯苓 各九分: 『醫統本』에는 “柴胡 桔梗 茯苓 各五分”으로 되어 있다.
- 3) 阿膠十分: 『醫統本』에는 “阿膠七分”으로 되어 있다.
- 4) 末之: 『醫統本』에는 “研末”로 되어 있다.

71) 李彥: 桂枝는 行陽氣하고 芍藥은 養陰血이라 甘草·大棗·膠飴는 俱甘味로 入脾하니 歸其所喜하야 以鼓舞脾氣하고 升騰瀦滯而爲胃行其津液焉이라 又生薑은 佐桂枝以行陽氣하고 而辛以潤之라

72) 裴乘哲: 東洋醫學大辭典, 成輔社, 서울, 2000

73) 吳謙: 所謂虛勞裏急諸不足者는 亦該上條諸不足證之謂也라

74) 陳紀藩: 小建中加黃耆而黃耆是補益中氣之品이니 可知本條證狀除上條證外 應有少氣 自汗或盜汗 惡風 或不仁等氣虛證狀이라

75) 徐彬: 若氣短胸滿이면 加生薑은 謂飲氣滯陽 故로 生薑以宣之라

76) 徐彬: 腹滿에 去棗加茯苓은 瀦飲而正脾氣也라

77) 徐彬: 氣不順加半夏는 去逆即以補正也라

78) 許淞: 房慾傷腎이면 精血不足養筋이니 陰虛悠悠痛하고 不能舉者는 六味地黄元 或八味元加鹿茸當歸木瓜續斷이라 『東醫寶鑑』·腰門·腎虛腰痛

79) 許淞: 內證 臍下有動氣…小腹急痛…『東醫寶鑑』·腎門·腎病證

80) 許淞: 腎虛하야 小便數而澀이 如欲滲之狀이면 宜平補元이라 『東醫寶鑑』·小便門·小便不利

【註釋】

- (1) 風氣: 風邪를 가리킨다.<sup>81)</sup>
- (2) 薯蕷: 山藥의 本名
- (3) 煉蜜: 熟湯. 꿀을 약한 불에서 물기가 없어지도록 졸인 것을 말한다.
- (4) 彈子大: 계란 노른자만한 크기로, 무게는 15~20g정도이다.

【國譯】

虛勞로 인해 陰陽氣血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風邪를 感觸하여 생긴 모든 병은 薯蕷丸으로 치료한다.

薯蕷丸方: 薯蕷三十分 當歸 桂枝 麴 乾地黃 豆黃卷 各十分 甘草二十八分 芎藭 麥門冬 芍藥 白朮 杏仁 各六分 人參七分 柴胡 桔梗 茯苓 各九分 阿膠十分 乾薑三分 白斂二分 防風六分 大棗百枚爲膏

이상 스물한 가지 藥材를 가루내고, 煉蜜로 彈子大 크기의 丸을 만들어 空腹에 술로 1丸을 服用한다. 1劑의 分量으로 百丸을 만든다.

【考察】

“虛勞諸不足”은 陰陽氣血이 모두 不足한 것이다.<sup>82)</sup> 陰陽氣血이 모두 虛하면 外邪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므로, 外邪에 쉽게 傷할 수 있다. 이처럼 正氣가 虛한데다 邪氣를 兼한 경우는 扶正祛邪의 方法을 사용해야하니 薯蕷丸을 사용한다.

薯蕷는 性味가 甘溫하고, 脾肺로 歸經하니, 虛勞를 補하고, 寒熱을 제거한다. 그러므로 君藥이 된다. 人參·白朮·茯苓·甘草는 四君子湯이니 氣를 補한다. 當歸·川芎·芍藥·地黃은 四物湯이니 血을 補한다. 防風·柴胡·桂枝는 風邪를 除去하고, 阿膠는 血을 補하고, 豆黃卷은 氣를 調和롭게 하고, 麥門冬·杏仁·桔梗·白斂은 肺氣를 順하게 하고, 乾薑은 溫中을 하고, 大棗는 脾를 補한다.<sup>83)</sup>

本處方은 體力이 弱한 老人이나 產後에 風邪를 받거나, 장기 간 반복해서 感冒에 걸릴 때 응용될 수 있으리라 思料된다. 다만 “一百丸爲一劑”라고 한 것을 보면 3개월 가량 長服해야 할 것이다.

17條. 酸棗仁湯證

【原文】

虛勞虛煩(1)不得眠 酸棗仁湯主之

酸棗仁湯方: 酸棗仁二升 甘草一兩 知母二兩 茯苓三兩(1) 芎藭二兩 深師(2)有生姜二兩

右五味를 以水八升으로 煮酸棗仁하야 得六升하고 內諸藥하야 煮取三升하고 分溫三服이라

【校勘】

- 1) 茯苓三兩: 『醫統本』에는 “茯苓二兩”으로 되어 있다.

【註釋】

- (1) 虛煩: 陰精이 부족하고 속에 熱이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며 불안해서 자지 못하는 證.
- (2) 深師: 書名. 僧深藥方 或 僧深集方이라고도 한다. 宋齊 시기에 승려 深師가 道人을 스승으로 삼고, 法存 등 諸家의 舊方으로 써 30卷을 편찬하였다. 原書는 失傳되었는데, 後世 醫書에 많이 인용되고 있다.

【國譯】

虛勞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못 이루면 酸棗仁湯으로 치료한다.

酸棗仁湯方: 酸棗仁二升 甘草一兩 知母二兩 茯苓三兩 芎藭二兩 深師有生姜二兩

이상 다섯 가지 약재 중 먼저 酸棗仁을 물 8升으로 6升이 되게 달인 뒤에 나머지 藥材를 넣고 3升이 되게 달여서 따뜻하게 세 번에 나누어 服用한다.

【考察】

자신만 熱感을 느끼는 것이 “虛煩”이다. 앓으나 누우나 편안치 않고 잠을 푹 들지 못하는 것을 煩이라고 한다. 이런 데는 竹葉石膏湯이나 酸棗仁湯<sup>84)</sup>을 사용한다.<sup>85)</sup>

『素問·調經論』에 “陰이 虛하면 곧 內熱이 생긴다.(陰虛則內熱)”고 하였으니, 本條文의 虛煩은 陰虛로 內熱이 생겨서 그러한 것이다.

酸棗仁은 肝으로 歸經하여 安神作用을 하니 君藥이다. 川芎은 肝氣의 鬱滯를 통하게 하니 臣藥이 된다. 知母는 肺胃의 氣를 서늘하게 하고, 甘草는 心氣의 實함을 瀉하고, 茯苓은 氣를 下焦로 인도하니 佐藥이 된다.<sup>86)</sup>

酸棗仁湯은 임상에서 不眠症·盜汗·神經性心悸·眩暈·驚悸·神經衰弱·neurosis 등에 응용할 수 있다.<sup>87)</sup>

18條. 大黃蠅蟲丸證

【原文】

五勞(1)虛極하야 羸瘦腹滿하고 不能飲食은 食傷 憂傷 飲傷 房食傷(1) 饑傷 勞傷으로 經絡榮衛氣傷이라 內有乾血(2)이면 肌膚甲錯(3)하고 兩目黯黑(4)이라 緩中補虛니 大黃蠅(5)蟲丸主之

大黃蠅蟲丸方: 大黃十分蒸 黃芩二兩 甘草三兩 桃仁一升 杏仁一升 芍藥四兩 乾地黃十兩 乾漆一兩 虵蟲一升 水蛭百枚 蟬蟻一升 蠅蟲半升

右十二味를 末之(2)하야 煉蜜和丸小豆大(6)하고 酒飲服五丸 日三服이라

【校勘】

- 1) 房食傷: 『醫統本』에는 “房室傷”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른다.
- 2) 末之: 『醫統本』에는 “研末”로 되어 있다.

81) 陳紀藩: 泛指病邪니 因風爲百病之長은 風邪入侵人體면 能引起多種疾病이라  
 82) 陳紀藩: 本條虛勞諸不足은 系指陰陽氣血不足이니 屬全身性虛勞病이라  
 83) 李炆: 薯蕷는 甘溫하고 入脾肺二經하야 補虛羸하고 除寒熱이라 在上滋源하고 在下補腎 故로 爲君이라 參朮苓草는 四君子也니 所以補氣라 歸芎芍地는 四物湯也니 所以補血이라 夫治風에 必養氣血者는 以補虛勞爲主니 所謂養正邪自消也라 更用防風·柴胡·桂枝하야 祛風이라 阿膠는 養血하고 豆黃卷은 和氣하고 麥冬·杏仁·桔梗·白斂은 順肺하고 乾薑은 溫中하고 大棗는 補脾曲導藥力이라

84) 石菖二錢半 酸棗仁炒 人參 各一錢半 知母 赤茯苓 甘草 各一錢 桂心五分 右剉作一貼 薑三片 水煎服  
 85) 李樾: 但獨熱者는 虛煩也 起臥不安하야 睡不穩을 謂之煩이니 宜竹葉石膏湯·酸棗仁湯이라  
 86) 沈明宗: 酸棗仁之入肝安神最多하니 爲君이라 川芎은 以通肝氣之鬱하니 爲臣이라 知母는 涼肺胃之氣하고 甘草는 瀉心氣之實하고 茯苓은 導氣歸下焦하니 爲佐라  
 87) 김정찬: 金要略湯證論治, 도서출판 정담, 서울, 2001, p 173

【註釋】

(1) 五勞: 五臟의 虛損, 즉 肺勞·肝勞·心勞·脾勞·腎勞 등 다섯 가지 虛勞 病증을 가리킨다.

(2) 乾血: 瘀結되고 凝固된 血, 즉 瘀血을 가리킨다.

(3) 肌膚甲錯: 피부가 메마르고 갈색을 띠며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까칠까칠하고 角質化되어 벗겨지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 체내에 乾血이 鬱結되거나 腸癰으로 膿이 적체되어 津液과 血이 외부를 영양하지 못하거나, 혹은 溫邪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陰液을 손상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4) 兩目黯黑: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5) 蟻: 鼠婦, 쥐며느리 자

(6) 小豆大: 무게는 0.1~0.2g정도이고, 직경은 5.00mm정도 이다.

【國譯】

五勞로 인해 虛함이 극에 달하면 몸이 몹시 마르고, 배가 그득해져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이는 飲食에, 근심에, 過飲에, 房事에, 굶주림에, 過勞로 傷하여 經絡과 營衛氣血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내부에 乾血이 생기면 피부가 까칠까칠해지고, 눈 앞이 캄캄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緩中補虛하는 大黃蟅蟲丸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大黃蟅蟲丸方: 大黃十分蒸 黃芩二兩 甘草三兩 桃仁一升 杏仁一升 芍藥四兩 乾地黄十兩 乾漆一兩 虵蟲一升 水蛭百枚 蟅蟲一升 蟅蟲半升

이상 열두 가지 약재를 가루 내어 정제된 꿀로 小豆크기 만하게 丸을 만들고, 술로 다섯 丸을 복용하되, 하루에 세 번 복용한다.

【考察】

本條文은 虛勞에 瘀血을 겸한 증상을 서술한 것이다.

“腹滿”은 자각증상으로, 瘀血이 있기 때문에 그득함을 느끼는 것이다. 만약 병이 심해지면 덩어리를 이루어 밖에서도 볼 수 있다.<sup>88)</sup> 內傷은 七情傷·飲食傷·房勞傷이니, 內傷으로 正氣가 虛해지면 血脈이 영겨 瘀血이 생긴다. 瘀血이 생기면 皮膚와 目系를 滋潤하지 못하므로 皮膚가 물고기 비늘처럼 까칠까칠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진다.<sup>89)</sup>

乾漆·虵蟲·水蛭·蟅蟲은 性味가 苦鹹하여 乾血을 없애고, 桃仁·大黃·黃芩은 性味가 苦甘하여 凝結된 熱을 瀉下시킨다. 杏仁은 利氣시키고, 地黄은 건조한 것을 적셔주고, 芍藥은 營氣를 調和시킨다. 甘草는 藥毒을 緩和시키고, 술로 복용하는 까닭은 瘀血이 단단히 뭉쳤기 때문이다.<sup>90)</sup>

【附方】

【原文】

千金翼炙甘草湯은 一云復脈湯이라 治虛勞不足汗出而悶하고 脈結悸라 行動如常이나 不出百日이요 危急者는 十一日死라

甘草四兩炙 桂枝三兩 生姜三兩 麥門冬一升 麻仁半升 人參二兩 阿膠二兩 大棗三十枚 生地黄一斤

右九味를 以酒七升水八升으로 先煮八味하야 取三升하고 去滓하야 內膠消盡이면 溫服一升호대 日三服이라

【國譯】

『千金翼方』의 炙甘草湯은 虛勞로 인한 汗出·胸悶·脈結·心悸 등을 치료한다. 행동은 평상시와 같지만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위급한 환자는 11일만에 죽는다.

甘草四兩炙 桂枝 生姜 各三兩 麥門冬一升 麻仁半升 人參 阿膠 各二兩 大棗三十枚 生地黄一斤

이상 아홉 가지 약재 중 阿膠를 뺀 여덟 가지 藥材를 먼저 술7升과 물8升으로 3升이 되게 달여서, 찌꺼기를 버린 다음 阿膠를 넣고 다 녹으면 1升씩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考察】

本方은 『千金翼方·卷十五』·五臟氣虛門에 “復脈湯”이란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悸”字 앞에 “心”字가 있고, “十一日”이 “二十一日”로 되어 있다. 또한 注에서 “張仲景은 炙甘草湯이라고 명명하였다.”<sup>91)</sup>고 하였다. 本方은 『千金翼方』의 “復脈湯”과 약물구성이 같고, 用量과 服用法만 약간 다르므로 원래 “復脈湯”은 張仲景의 처방으로 보인다.

炙甘草·人參은 益氣養心하고, 桂枝는 心陽을 복돋아 血脈을 通하게 하며, 生地黄·麥門冬·阿膠·麻仁은 養陰補血하고, 大棗·生薑은 中焦와 營衛를 조화롭게 한다. 이들 약물을 배합하면 養血補氣·通陽復脈하는 효능이 있다.<sup>92)</sup>

【原文】

肘後癩肝散은 治冷勞하고 又主鬼疰一門相染이라

癩肝一具를 炙乾末之하고 水服方寸匕호대 日三服이라

【註釋】

(1) 癩肝: 수달의 간, 성미가 甘鹹平하다. 氣가 上逆하여 발생하는 咳嗽와 虛損으로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2) 冷勞: 虛寒證에 속하는 虛勞病을 가리킨다.

(3) 鬼疰: 사람이 처음에는 특별한 통증이 없다가 돌연히 鬼邪에 게 공격당한 것처럼 아픈데, 心腹刺痛이 있거나 혹은 가슴이 답답하여 땅에 쓰러지는 것이 마치 中惡症 같다. 차도가 있는 후에도 邪氣가 흩어지지 않고 남아 오래도록 쌓여서 때때로 발작하며 낫지 않는데, 오랫동안 지속되면 죽는다. 죽은 후에는 옆 사람에게 전염되므로 “鬼疰”라 한다.

【國譯】

『肘後備急方』의 癩肝散은 冷勞를 치료하고, 鬼疰가 온 집안에 전염되는 것을 치료한다. 水癩의 肝을 구워 말려 가루 내어 물로 1숟가락씩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考察 및 結語

血痺症은 營衛가 虛한 틈을 타서 風邪가 침입하여 經脈을 凝滯시켜 생긴다. 脈象은 陰陽俱微·寸口關上微·尺中小緊이고, 증상은 身體不仁·或微痠痛이다. 治法은 溫陽行痺·補氣行血을

88) 陳紀藩: 腹滿은 自覺症이나 因腹中有瘀血留着이라 重則結聚成塊하야 從外形看이라 臃腹不脹이나 而病人自覺腹中脹滿이라  
89) 程林: 夫人或因七情 或因飲食 或因房勞하야 皆令正氣內傷하고 血脈凝積이면 致有乾血積于中而虛滿見于外也라 血積則不能以潤肌膚 故로 肌膚甲錯하고 不能以養于目 則兩目黯黑이라  
90) 李炆: 留者攻之하고 燥者濡之라 苦走血하고 鹹勝血이니 乾漆·虵蟲·水蛭·蟅蟲·蟅蟲之苦鹹以攻乾血이라 甘緩結하고 苦泄熱이니 桃仁·大黃·黃芩之苦甘以下結熱이라 血乾則氣滯而榮竭 故로 用杏仁利氣하고 地黄潤燥하고 芍藥和榮이라 又恐藥毒猛峻이니 甘草緩之하고 恐乾血堅凝이니 酒飲行之也라

91) 仲景은 名炙甘草湯이라  
92) 郭東烈: 『金匱要略譯解』, 成韓社, 서울, 2002, p 160

원칙으로 삼는데 血痺가甚하지 않은 경우에는 鍼으로 井穴에 刺針하여 陽氣를 운행하지만, 甚할 경우에는 黃芪桂枝五物湯으로 치료한다. 血痺는 氣가 血液을 推動하지 못하여 血虛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血行靜止’(stasis)의 상태이다. 血行이 靜止되면 末梢의 靜脈血管內에 血球가 重疊되고 動脈內에 充血되어 陽이 陰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陰이 陽을 이끌지 못하여 重疊된 血球가 凝固되지도 않고 또 凝集되지도 않고 銅錢이 쌓여 있는 것과 비슷하게 된 상태가 된다. 이러한 현상을 血柱(Blutsaure)라 한다. 현대 임상에 있어서 血痺는 撓骨神經麻痺, 尺骨神經麻痺, 下肢不安證候群과 類似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麻痺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2條의 “陰陽俱微”의 ‘陰陽’은 氣血과 部位로 이해할 수 있으나 뒤의 “寸口關上微 尺中小緊”으로 미루어 보아 氣血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虛勞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臍腑陰陽氣血이 虛해지는 것이다. 특징적인 脈象은 大脈·極虛脈이고, 세분하면 陽虛인 脈象은 脈沈小遲이고, 陰虛인 脈象은 脈浮·脈浮大이고, 陰陽이 모두 虛한 脈象은 脈虛沈弦·脈浮弱而澁·脈虛細微·脈弦而大 弦則爲減이다. 본 편에 제시된 虛勞의 治方은 桂枝加龍骨牡蠣湯·小建中湯·黃芪建中湯·薯蕷丸·酸棗仁湯·腎氣丸·大黃蠅蟲丸이 있다.

以上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4와 같다.

表4. 虛勞의 用藥

病機	症狀	治法	治方
心腎陽虛	小腹弦急 陰頭寒 目眩髮落 脈極虛乳遲	甘溫扶陽 鎮攝滋精	桂枝加龍骨牡蠣湯
陰陽兩虛	裏急 悸衄 腹中痛 夢矢精 四肢痠痛 手足煩熱 口乾咽燥	調協陰陽 建立中氣	小建中湯 黃芪建中湯
虛勞諸不足	風氣百疾	調補脾胃	薯蕷丸
陰虛火旺	虛勞虛煩不得眠	養陰寧心	酸棗仁湯
腎陽不足	虛勞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	溫腎化氣	腎氣丸
瘀血內停	羸瘦腹滿 不能飲食 肌膚甲錯 兩目黯黑	緩中補虛 活血化瘀	大黃蠅蟲丸

後대의 『東醫寶鑑』<sup>93)</sup>에는 虛勞를 心勞·肺勞·肝勞·脾勞·腎勞의 五勞, 筋極·骨極·血極·肉極·精極·氣極의 六極, 陰寒·陰痿·裏急·精瀰·精少·精清·小便數의 七傷으로 분류하였고 또한 解休證과 注夏病도 虛勞에 포함시켰다. 用藥에 있어서는 陰虛·陽虛·陰陽俱虛·心虛·肝虛·脾虛·肺虛·腎虛로 구분하여 陰虛에는 大補陰丸·加味補陰丸·大造丸·滋陰降火丸 등을, 陽虛에는 茸附湯·參芪建中湯·鹿茸大補湯 등을, 陰陽俱虛에는 雙和湯·八物湯·加味十全大補湯·固真飲子·人參養榮湯 등을, 心虛에는 古庵心腎丸·究原心腎丸 등을, 肝虛에는 歸茸元·拱辰丹 등을, 脾虛에는 橘皮煎元 등을, 肺虛에는 人參黃芪散을, 腎虛에는 六味地黃元 등을 收錄하였다.

### 參考文獻

-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臺北, 裕昌德書局, 1960.
- 魏荔洞.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 尤怡. 金匱要略心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 陳念祖. 金匱要略淺註. 台南, 綜合出版社, 1990.
-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 臺北, 力行書局有限公司, 1994.
- 曹家達. 金匱要略發微. 臺北, 志遠書局, 2003.
-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大邱,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82.
-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 王叔和. 影宋版 脈經. 大板, 東洋醫學研究院, 1981.
- 巢元方 著, 南京中醫學院編. 諸病源候論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孫思邈 著, 李景榮 等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5.
-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 王焘.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 吳大真 總編. 中醫辭海·上.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9.
- 王懷隱 等. 太平聖惠方. 서울, 翰成社, 1978.
-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 朱楠 撰. 普濟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5.
-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 王肯堂. 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中醫辭海·上. 吳大真 總編.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9.
- 李杲. 金匱要略廣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3.
- 楊思澍·張樹生·傅景華: 中醫臨床大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 趙以德, 周楊俊. 中國醫學大成·傷寒金匱分冊 金匱玉函經二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參考辭典類

- 中醫研究院, 廣東中醫學院. 中醫名詞述語辭典. 知識出版社, 香港, 年度未詳.
- 張三植. 大漢韓辭典. 서울, 集文堂, 2001.
-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84.
-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서울, 民衆書林, 1984.
-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9.
-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 1987.
- 金赫濟, 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서울, 集文堂, 1991.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高文社, 1987.
-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增訂 韓醫學大辭典. 서울, 정담, 2001.
- 蔡仁植, 權賢德, 邊元九. 漢方醫學用語大辭典. 서울, 癸丑文化社, 1983.
- 民族文化研究所. 中韓辭典. 서울, 高麗大學校, 1998.

93)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pp443-454